

## 대전환 시대, 번역학의 지속가능성\*

이 향 · 남 원 준 · 이 형 진  
(한국외대 · 한국외대 · 숙명여대)

### 1. 번역학의 학문화 과정, 그리고 파편화

**이향:** 한국번역학회의 2023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주제 <대전환 시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재검토>는 그 무게가 남달라 보입니다. 번역학의 학문적 위상과 지속가능성을 묻는 이 근원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기 다른 주제를 연구해 온 세 명의 연구자가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의 주제를 붙들고 오랜 시간 연구하다 보면 ‘번역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있어도 학회에서 늘 마주치는 동료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해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토론은 각

---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Note:* 한국번역학회는 2023년 10월 14일에 개최된 가을학술대회에서 원탁토론회 (roundtable discussion)라는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통번역학 발전사, 번역교육, 문학번역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연구해 온 세 명의 연구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대전환 시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재검토>라는 화두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원탁토론회에서 개진된 논의는 학술대회 이후 번역학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 토론문은 그 내용을 심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준 한국번역학회에 감사를 드린다.

자의 공간에서 나와 공통의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도가 번역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파편화(fragmentation)를 극복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 새로운 방식의 토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이형진:** 1999년 10월 창립된 한국번역학회는 지난 20여 년의 짧은 시간에 국내 인문사회 학술 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학문적 성장과 발전을 거두면서 국내 학계에 번역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오늘날 질적, 양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문학 학회 중에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이 같은 발전의 원동력은, 번역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필요성과 가치, 방향성을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를 구축한 대부분의 학문 분야가 직면하는 ‘성공의 딜레마’를 이제 번역학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생 학문이 자리를 잡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내에 다양한 세부 전문 분야가 등장하면서 학문적 다양성이 확대되는데, 세부 분야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면서 세부 분야가 자칫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학문의 파편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편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늘날 번역학의 위상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준:**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유럽 번역학계에서도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체스터만(Chesterman 2005: 24), 먼데이, 라모스 핀토와 브레이크슬리(Munday, Ramos Pinto and Blakesley 2023: 458) 등은 지금까지의 번역학 연구를 텍스트적(textual), 인지적(cognitive), 문화적(cultural), 사회적 접근(social approach) 등 4개의 큰 물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자며, 이른바 ‘통섭’(consilience)을 제안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번역학계에서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그려야 할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향:** 그럼 앞서 언급한 학술대회 주제 안에 담겨 있는 키워드 중 우선 ‘학문’이라는 키워드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역학이 처음부터 독립학문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역학은 유럽에서 70년대 중반에 기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학문의 우산 아래에서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으며 연구해 왔습니다. 국내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번역학의 출발점인 70년대 유럽으로 돌아가 학문탄생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이 번역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미래의 문제에 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진:** ‘학문’(學問, academic discipline)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된 지식체계를 의미합니다. 학문영역으로서의 번역학의 출발좌표를 정확하게 표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1964년 나이다(Nida)의 저서 제목인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Nida 1964)이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하지만, 저는 1972년 발표된 홈즈의 논문 ‘*The Name and the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Holmes 1988/2004)가 번역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이 학문 분야의 명칭으로 제안한 ‘translation studies’는 당시 ‘translatology’나 ‘traductology’, ‘science of translation’ 등의 경쟁 후보를 제치고 번역학이라는 분야의 학문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Munday, Ramos Pinto and Blakesley 2023: 36-38).

**남원준:** 네, 인류의 번역 실무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나, 번역학의 역사는 그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이는 번역이 오랫동안 외국어 학습수단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교문학, 번역 ‘워크숍’, 대조언어학 등에서 번역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홈즈의 연구 덕분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홈즈는 번역연구만의 ‘본부’, 번역연구만의 고유의 학문 분과가 없고 외국어학, 언어학 등 더 오래된 학문들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번역을 연구하다 보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학문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번역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전통 학문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소통 채널’(Holmes 1988/2004: 181)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홈즈의 발표가 남긴 가장 큰 기여는 번역학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홈즈/투리(Holmes/Toury)의 번역학 ‘지도’(the map)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Munday, Ramos Pinto and Blakesley 2023: 36-44).

**이향:** 홈즈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번역학의 탄생이 홈즈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대의 비네와 다블네(Vinay and Darbelnet)<sup>1)</sup>,

60년대의 나이다 등을 최초의 학문적 번역연구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번역을 연구한 것과 번역연구를 독립학문으로 ‘선포’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번역을 연구하는 학문의 명칭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은 70년대 맥락에서는 남다른 통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즈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그가 학문의 명칭을 제안했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이형진:** 홈즈의 또 다른 역할은 번역학의 학문 영역 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하나의 영역이 학문 분야로 독립해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바로 학문 분야의 ‘영역 설정’입니다. 해당 학문 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지, 왜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지, 유사한 기존의 학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필요성 확보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같은 학문적 정체성과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해당 학문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학문 분야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홈즈의 논문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서의 번역학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보입니다.

**남원준:** 홈즈는 1972년 발표에서 번역학이 이론, 기술, 응용의 세 갈래로 구성되며, 서로 밀접히 연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투리가 도해의 형태로 풀이한 것이 홈즈/투리의 번역학 ‘지도’인데, 이는 유연하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번역학 연구 동향에 따라 후세의 연구자들이 충분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72년 발표 당시 ‘응용’ 영역에 번역교육, 번역보조도구, 번역비평만 제시했는데, 여기에 번역소프트웨어(MT, CAT),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소싱, 온라인포럼, 텀베이스(termbase)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Munday, Ramos Pinto and Blakesley 2023: 42-43).

**이향:** 흥미로운 것은 홈즈가 네덜란드어로 쓰인 시를 영어로 번역하던 문예인이자 번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번역학의 모습이 홈즈가 구상한 번역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학연구자가 고안했던 청사진임에도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포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산발적으로

1) 나이다나 홈즈, 무냉이나 야콥슨보다 이전인 1958년 캐나다의 두 언어학자 비네(Vinay)와 다블네(Darbelnet)의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은 파리와 몬트리올에서 동시에 출판된다. ‘번역방법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번역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이향(2008)을 참고한다.

홀어져 있던 번역 연구들이 흠즈 덕분에 번역학으로 수렴된 셈입니다. 개별 연구가 ‘—학’이 되려면 명칭과 영역 설정 외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형진:** 학문 영역의 ‘체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분야가 학문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의 재능이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이다가 사용한 ‘science’라는 용어의 맥락이나 흠즈/투리의 번역학 ‘지도’나, 1998년 발행된 『라우틀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Baker and Saldana 1998/2011)의 역할은 바로 학문적 체계성과 직결됩니다. 학문적 체계성의 중요성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던 18세기 말 프랑스 ‘백과전서파’(Encyclopedist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백과전서파’의 이성적, 합리주의적 접근법은 서구의 근대적 지식체계와 학문적 사유 방식을 분류하고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조재룡 2010: 456-458). 교육을 통해 개별 학문 분야를 학습하고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도 이 같은 학문적 체계성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남원준:** 번역 교육도 ‘체계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교육기관의 졸업 후 진로, 교육목표, 교과과정, 각 수업의 학습목표, 수업활동, 평가방법이 서로 ‘정렬’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빅스, 탕과 케네디(Biggs, Tang and Kennedy 2022: 94-104)가 이야기한 ‘건설적 정렬’(constructive alignment)을 이뤄야 합니다. 얼마만큼 정렬을 이루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기관을 평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번역교육이 갖춰야 할 ‘체계성’이라고들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 흠즈를 위시한 유럽의 학자들은 대체로 위의 단계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번역학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학문명이나 학문의 성격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흠즈에게서 비롯된 ‘translation studies’라는 학문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이 아닌 ‘—연구’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cultural studies’, ‘gender studies’는 ‘문화학’, ‘젠더학’이기 이전에 ‘문화연구’, ‘젠더연구’로도 불렸습니다. ‘번역학’이나 ‘번역연구’이냐의 문제는 단지 ‘studies’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일까요?

**이형진:** 학문 명칭의 역사적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통적인 인문학의 영문 명칭이 ‘a branch of knowledge’ 또는 ‘science’라는 의미의 ‘-ology’로 끝나

는 경우가 많은데, ‘anthropology, archaeology, philology, psychology, sociology, theology’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학에게 ‘translatology’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학문 명칭인 ‘—studies’는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이나 ‘종교학’(religious studies), ‘젠더학’(gender studies), ‘영상연구’(film studies),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처럼 기존 학문 분야로부터 학제 간 연구 분야로 독립한 전공명들은 당시 시대적 수요나 해당 분야의 학문 외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융합적, 학제 간 특성을 체계화하지 못한 채 독립하면서 오히려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던 ‘미국학’(American studies)이나 ‘지역학’(regional studies)처럼 학문적 독립이 반드시 학문적 가치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향:** ‘미국학’이나 ‘지역학’이 걸었던 길을 언급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번역학도 같은 운명을 걷게 되면 어쩌나 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번역학의 경우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형진:** 모든 학문은 학문적 발전 과정에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세부 분야를 만들어 내는데, 번역학 연구도 번역학이라는 대분류 안에서 문학번역이나 영상번역, 문화번역, 번역교육, 번역이론, 코퍼스, 기계번역 등 다양한 세부 분야로 전문 영역이 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화는 세부 분야 전공자들끼리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세부 분야가 발전하고 구성원들의 규모도 커지다 보면 자칫 해당 분야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아예 해당 세부 분야에만 집중하는 학술지나 학회를 따로 만들어서 자신들끼리 소통하는 것이 학술적 교류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인 관점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번역학 내의 다른 분야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교류가 사라지면서 막연한 학문적 타자로 배제하는 파편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학 연구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주는 공통의 학문적 가치와 문제의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통역학의 운명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통역학은 파편화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운가요? 통역연구자에게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이향:** 사실 번역학은 한 번도 통역을 배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연구자들은 늘 번역학 안에서 통역연구의 자리가 비좁다고 느껴왔습니다.<sup>2)</sup> ‘통역학’이라는 명칭이 가시화된 것은 1992년 비엔나에서 열린 ‘번역학 총회’(Translation Studies Congress)<sup>3)</sup>입니다. 여기서 통역학자 질(Gile)은 여타 학문에 더 열려있는, 개방적인 통역학(interpretation studies)을 주장했습니다(Gile 1994). 90년대부터 통역학을 전면에 내건 저서와 학술지가 만들어지면서 통역학의 가시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통역학 안에서 지역사회통역학(community interpreting studies)이라는 또 다른 리그가 만들어집니다(Rudvin 2007: 47). 기존 통역학이 지나치게 회의통역(conference interpreting) 연구에만 몰두해 왔다는 자각 때문이죠(Baker 2006: 111). 이런 과편화의 연쇄는 무한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러한 ‘분가’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 2. 서구의 번역학과 한국의 번역학

**이향:** 이제 한국의 번역학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번역은 정확히 언제 번역학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통역이나 번역과 같은 실무를 토대로 한 연구는 정확히 언제 ‘—학’이 되는 것일까요? 가령 다도나 요가는 언제 다도학, 요가학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단순하게는 다도학 박사과정, 요가학 박사과정이 생기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번역이 번역학이 된 시점은 1999년 세종대와 한국외대에 번역학 박사과정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형진:** 인문사회 분야의 대부분 전공의 박사학위 공식적인 명칭이 라틴어 ‘Philosophiae Doctor’(Doctor of Philosophy)에서 유래한 ‘Ph.D.’라는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인문사회 학문 분야는 결국 그리스·로마 시대의 ‘철학’이라는 학

2) 통역연구자와 번역연구자 사이의 간극과 긴장에 관한 흥미로운 논쟁은 샤프너(Schäffner 2004)를 참고한다.

3) 이 총회는 번역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모멘텀이다. 총회에서 유럽번역학회(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가 창설되고 초대 회장으로 슈넬 혼비(Snell-Hornby)가 선출되었다.

문 분야에서 분화되어 각각의 세부적인 학문적 영역을 설정하면서 파생된 영역이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다도’나 ‘요가’가 ‘다도학’이나 ‘요가학’이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과정만큼이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가능성’입니다. 해당 주제를 교육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입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해당 분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입니다. 해당 분야를 공부해서 박사를 취득할만한 필요성과 가치, 그리고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학’(cleaning studies)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해도, 과연 ‘청소학’이라는 박사과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청소학’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정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문학의 후발주자이자 융합 학문인 번역학은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과 효용가치를 설득하고 증명해 보이는(안호영 2017: 316-317), 즉, 번역학의 ‘가시성’을 확대하는 연구자들과 학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남원준:** 그렇다면 이미 통역학 박사과정이 있는 통역학은 독립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향:**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번역학, 통역학, 통번역학 사이의 명칭과 포함관계 정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박사학위증을 기준으로 우선 답해보면, 통역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쓴 사람에게 통역학 박사학위를 준다면 통역학이 번역학과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쓴 사람에게 ‘통역번역학 박사’ 학위를 준다면 통역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셈이지요. 현재 학교별로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번역만으로 학위를 쓴 사람을 통역번역학 박사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 혹은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학위만 분리시키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번역학의 ‘교육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교육가능성이라는 말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듯합니다.

**남원준:** ‘교육가능성’을 논할 때는 첫째 ‘번역학’의 학문으로서의 교육 가능성(신진 연구자 배출)과, 둘째 대학원 또는 일부 학부 통번역 ‘실무’ 교육 가능성(통번역가 양성)과, 셋째 전공언어 교과과정 안에서 문학, 언어학, 지역학 등의 인근 학문분과와의 융합 학문으로서의 번역의 교육 가능성을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공언어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학문으로서의 번역학과 둘째 대학원·학부 일부의 통번역 ‘실무’ 교육 가능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학문 분과와의 융합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교육 가능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향:** 국내 번역학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사과정 개설 전후로 번역학 전문 학술지, 학회도 만들어졌고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야 분류표에 ‘통역번역학’이 독립 학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류표를 잘 살펴보면 번역문학, 문학번역 등의 항목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번역학 탄생 전에는 문학 안에서 번역을 연구해 오던 다수의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번역’에 방점을 찍는 문학번역 연구는 ‘문학’에 방점을 찍는 번역문학 연구와 방법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이형진:** ‘문학번역’과 ‘번역문학’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번역학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문학’은 자국 문학과 외국 문학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중간자적 딜레마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조재룡 2016: 9). 자국 독자들이 읽을 수 없는 외국어로 쓰인 외국문학은 시공간적 거리감과 낯설음 가지는데, 자국어 번역을 통해 거리감이 좁혀지면 번역문학은 다양한 방식과 층위로 자국 독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문학도 작품의 주제와 맥락이 자국 독자들과 학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면서, 자국 문학과 비교연구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문학번역’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문학텍스트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이 현상과 방법론에 집중됩니다. 이 같은 전이와 변형 현상이 목표어문화권에서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가치나 반향이 번역수용의 측면에서 문학번역의 유의미한 연구대상이 됩니다.

**남원준:** 번역문학이 문학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문학을 교육·연구하고, 번역 실무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한국의 번역문학을 홍보하는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RECIT 네트워크’(Réseau Européen des Centres Internationaux de Traducteurs littéraires, 유럽 문학번역가센터 네트워크)와 ‘풀브라이트’(Fulbright) 재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한국문학번역

원이 설립을 준비 중인 문학번역대학원도 번역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번역문학’과 ‘문학번역’의 접근을 취하는 분들이 좀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남원준 2023: 146-148).

**이형진:** 번역이 문학과 밀착되어 있다면, 번역교육은 외국어교육과도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교육과 번역교육의 관계는 어떤가요?

**남원준:** 외국어교육과 번역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번역을 외국어 학습을 위한 수단 정도로 낮추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와서 외국어교육에 번역을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Cook 2010: 25-53; Carreres 2014: 124-125).

**이형진:** 그렇다면, 기존의 외국어교육학과 번역교육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원준:** 외국어교육학과 번역교육학의 관계를 교집합과 차집합이 있는 관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어교육학의 세부전공은 대개 언어습득, 교과과정, 교수법, 교재 개발, 교육 테크놀로지(에듀테크(EduTech), 외국어 글쓰기, 외국어 교육 정책, 상담심리, 평가, 교사 양성 등으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번역교육의 대표 문헌인 켈리(Kelly 2005/2014)는 교육목표, 교수자의 요건, 학생의 적성, 교과과정, 교재 개발, 교육 테크놀로지, 수업활동, 외국어교육과 번역의 관계, 이론과 실무의 관계, 평가, 교수자의 재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둘 간의 교집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퍼스 기반 교육, 학습동기, 학습불안, 자기 효능감, 학습자 신념 등 외국어교육학에서 각광을 받는 주제를 번역교육에서 이어받아 번역교육 현장에 적용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번역교육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토양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고유합니다. 게다가, 둘 간의 차집합도 매우 명확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큼니다. 번역은 모국어-외국어 2개의 언어능력, 주제지식 능력, 번역지식 능력, 도구 능력, 전략수립 능력, 심리 능력 등이 요구(Hurtado Albir 2017)되는데 외국어능력은 그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만으로도 외국어교육학과 구별이 됩니다.

**이향:**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역학의 탄생 과정에서 문학연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홈즈를 위시한 루벤 그룹<sup>4)</sup> 연구자들, 투리를 포함한 기술번역학(DTS: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학자들이나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

론가 등은 모두 문학연구자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번역을 문학보다 큰 범주로 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기점으로, 비교문학 아래에 번역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번역학을 상위카테고리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비교문학을 두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Lefevere and Bassnett 1990: 12). 그런데 번역학이 다양한 통번역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초기 번역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문학번역이 번역학 아래로 뺏은 여러 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번역학이라는 학문장에서 문학번역 연구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혹은 어떤 방향으로 스스로의 좌표를 찍어야 할까요? 문학번역 연구도 젠더연구나 문화연구처럼 독립적 위상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형진:** 문학번역 연구가 독립된 학문적 위상을 추구한다면 어떤 목표와 장점이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학번역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문학번역이 기존의 ‘문학’이라는 학문 단위에 귀속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번역은 비록 학제 간 정체성이 모호하고 중간자적 위상을 가지더라도 계속해서 다양한 인접 학문과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 내면서 문학번역의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결국 문학번역의 학문적 정체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 학문인지 그 영역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학문 세계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불안감하면서도 자유로움이라는 점에서 문학번역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그 불안감과 자유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향:** 만약 문학번역이 독립된 학문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를 앞서 언급하신 학문의 영역 설정이나 체계성,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설명한다면, 문학번역은 기존 학제의 ‘사이’에 있다는 것이 그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고, 그 것이 오히려 문학번역 연구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형진:** 학문 영역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문학번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관한 연구가 목표어를 기준으로 기존의 영문학 영역으로 분류할지, 원천어를 기준으로 국문학 영역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번역과정이나 번역방법론 중심적인 번역학의 연구대상인지가

4) 루벤 그룹의 번역학에 대한 기여는 이향(2019)을 참고한다.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는 이유는 학문 영역으로서 문학번역의 정체성과 고유성 설정의 어려움에 기인합니다. ‘문학번역’이라는 이름에 내재된 문학과 번역을 분리하지 못하는 이상, 문학번역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 확보와 울타리 설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둘째, 학문 영역의 체계성도 문학번역에서는 홈즈/투리의 번역학 ‘지도’와 같은 고유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학번역 영역의 대표적인 분류 체계인 시 번역, 소설 번역, 희곡 번역 등과 같은 카테고리도 문학번역만의 고유한 정체성과는 무관한 기존 문학 연구의 기본적인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문학번역에서 문학과 번역의 관계는 대등한 상호작용적 관계라기보다는 번역이 문학에 종속되는 위계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문학번역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체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학문 영역의 지속가능성은 문학번역의 오래된 경쟁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번역의 역사는 문학의 역사와 함께할 만큼 길고 장대하지만, 번역학 역사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번역가인 17세기 드라이든(Dryden)이나 19세기 피츠제럴드(Fitzgerald)나 파운드(Pound)는 모두 동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문학번역은 번역 자체가 궁극적인 미학적 목표점이 아니라 특권적인 외국어 역량에 기반해서 시인으로서의 각자의 문예적, 창조적 역량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미학적 도구로 문학번역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번역은 문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구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출 수 있습니다. 즉, 문학번역은 학문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최소 조건은 충족시킬 수는 있어도 문학번역의 고유한 학문 영역을 성공적으로 설정했는지는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향:** 초기 번역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진 연구자의 다수가 비교문학 전공자였습니다. 서구에서 비교문학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형진:** 다문화 환경으로 구성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기에 할아버지와 프랑스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엄마가 독일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벨기에나 프랑스, 독일이 그냥 이국적인 타자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차원의 관심이 학문적 탐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중언어 사용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을 비교하며 문학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학제 간 연구인 비교문학이 유의미한 학문 영

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대학에서 ‘비교문학’이라는 이름의 학과나 전공, 부전공,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14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비교문학은 문학연구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형진 2021: 22). 오히려 미국 대학 과정에 ‘통번역학과’나 ‘번역학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역설적인 현실에서, 문학번역에 대한 주도권은 전적으로 비교문학 전공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징하는 바는 큼니다. 번역학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바스넷(영국 워릭대)이나 르페브르(미국 텍사스대), 투리(이스라엘 텔아비브대), 랑베르(벨기에 루벤대), 겐츨러(미국 매사추세츠대) 등은 모두 대학의 비교문학과 교수였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향:** 루벤 학과를 대표하는 랑베르는 번역학이 여전히 지나치게 문학적인 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Lambert 2005). 자신도 비교문학 전공자였던 랑베르의 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5년도 당시 유럽을 기준으로 한 답변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국내 번역학에서 여전히 문학번역연구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비판일까요?

**이형진:**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 과정에 이미 통번역학과나 통번역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현실과는 달리, 학부에 비교문학 전공이나 교과목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문학 전공 교수 채용조차 한 번도 없었던 국내 학계에서 비교문학의 존재감은 번역학과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 문학번역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아마 비교문학의 위상과는 무관하게, ‘노벨문학상’ 열풍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여전히 유의미한 세계문학의 위상이나 기득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학번역 관련 연구가 사실 문학 분야 내에서는 여전히 주변적이고 소외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이 암시하는 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번역학의 뿌리를 논의하다가 그 뿌리에서 번역학의 탄생을 도운 비교문학 연구자의 역할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번역의 이야기일 수 있고, 통역연구 혹은 통역학의 출발점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번역학의 출발점에 인접 학문의 연구자들이 있었다면 통역학의 출발점에는 현장의 실무자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학계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된 번역학과 달리

통역은 실제로 현장에서 통역을 하던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역교육은 어떤 특수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향:** 통역학의 출발점도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1975년 파리 통번역 대학원(ESIT: E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에 유럽 최초의 통번역학 박사과정 개설을 중요한 지표로 본다면, 이것을 주도한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와 르데레르(Lederer)는 국제회의 통역사<sup>5)</sup>였습니다. 번역학의 경우, 문학번역연구자들이 모두 문학번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70년대 DTS, 90년대 ‘문화적 전환’을 주도한 연구자의 상당수는 러시아형식주의 문예이론, 비교문학 등에서 영향을 받았고, 인문학적 지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파리스쿨이나 스코포스 이론가들에게는 교육의 문제, 즉 어떻게 통번역사를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역실무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원준:** 국내에서도 통번역대학원 교수들과 국제회의 통역사들이 주축이 되어 통역교육과 통역연구를 견인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소수였던 전문통역사들로 일종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먼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국내에서 통번역 교육이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통번역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사신 접대 기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삼국시대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전담 기관이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입니다. 제도적인 통번역 교육은 1276년 통문관(通文館)이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유정화 2014: 126). 그러나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았을 때 찾아온 미군정기에는 한국어-영어 통번역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미군은 엉뚱하게도 일본인 2세 통역사들 이른바 ‘Nisei’ 통역사 30명과 함께 1945년 인천에 도착합니다(Kim H. 2021: 131-133). 그러나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군정은 현지어인 중국어 통역사를 선발합니다. 이후 별도의 통번역기관이 존재하지 않다가 1979년에 한국외대에 통번역대학원(당시 ‘동시통역대학원’)이 설립됩니다(안인경 2019: 116-117).

5) 통역학이 수많은 통역의 유형 중 유독 회의통역의 연구에 집중했던 것은 셀레스코비치나 르데레르와 같은 회의통역사들이 통역연구의 학문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이향(2023)을 참고한다.

**이향:** 그 이후 국내 통번역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왔나요?

**남원준:** 대학원과 학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그에 이은 개최 준비, 한국의 국제화 등과 맞물리면서 통번역대학원은 힘차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9명의 통역사를 해외에 전액 국비 유학을 보낸 정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Kim D. 2023: 115). 이후 1997년에 이르러 두 번째 전문대학원인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이 개원하였고, 이어 1997년~2005년 사이 매년 대학원 과정이 한 개꼴로 문을 열었습니다(ibid.: 117). 지금까지 개원한 국내 통번역 전공 대학원은 모두 17개입니다. 대부분은 통번역 실무 중심이고, 일부는 이론 중심입니다(Lee and Nam 2019: 3). 국내 통번역 전공 대학원은 영·중·일 등 몇몇 전공 외국어 학과를 중심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지정학적 관계, 통번역 수요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8개 언어(영·중·일·불·독·러·서·아), 이화여대 4개 언어(영·중·일·불), 제주대(영·중·일·독) 등입니다(김진아 외 2014: 334).

**이향:** 국내 통번역 전공 대학원 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이 있었기에 학부의 통번역 전공 개설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남원준:** 국내 통번역 학부과정은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늘어납니다. 특이한 부분은 “학부에 먼저 기본 교과과정이 개설된 후 대학원 과정을 통해 심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반 교과과정과는 달리 통번역의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이 먼저 개설된 후 이를 학부 과정에 도입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김순영 2006: 6)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통번역대학이 개설되면서 9개 언어 통번역 전공학과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기준 국내 4년제 대학 통번역교육기관이 8개로까지 늘었습니다. 전공 언어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입니다(이경희 2020: 121-126).

**이향:** 이렇게 교육과정이 늘었으니, 학부에서 통번역을 가르치던 교수자들이 발표한 연구도 많아진 것이겠지요?

**남원준:** 그렇습니다. 예컨대, 국내 통역연구 중 통역교육에 관한 연구 비중이 약 30%까지 된다고 하니 교육에 대한 학계 관심은 늘 매우 높았습니다(한현희 2017: 172). 2016년까지의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토해 보면, 통번역 교육 연구 중 대학원 과정의 교육 연구가 120편으로 전체 연구의 52.17%,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연구가 83편으로 36.08%를 차지합니다. 주제별로는 교수 철학(이론적 틀, 학제적 유형, 교육 구성요소), 교수법(강의실에서의 접근) 등에 관한 연구(69.13%)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뒤를 이어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습니다(한현희 2017: 182-184).

**이향:** 2023년도 현재 학부과정은 8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조재범 2023b: 146). 한국외대의 캠퍼스 간 중북학과 통합의 일환으로 통번역대학의 각 학과가 서울캠퍼스 관련 학과와 통합 중에 있습니다. 학부에 통번역 과정이 확산되는 추세도 다소 주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원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번역 교과 개설이 정체되기도 하고, 학과 폐지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이경희 2020: 123). 통번역 교과개설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컨대, 중국어 통번역과목의 경우 2008년 108개 대학에서 2011년 86개 대학, 2018년에는 61개 대학으로 감소했습니다(손지봉 2019: 128-129). 통번역 교육에 필요한 물리적, 인적 자원 등 실질적인 학교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의 통번역 일자리에 대한 전망 등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향:** 맞습니다. 통번역학과를 만들어 놓고 통번역 전공자를 채용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이 없다면 학과의 정체성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에서도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에서는 전공자 채용이 없었습니다. 통번역을 전공자가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공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통번역 연구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방금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셨는데, 통번역 교육현장은 본 학술대회의 제목인 ‘대전환’이 가장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기존의 강의방식이나 인재상 등에 대한 근본적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지요?

**남원준:** 최근 학생들의 선호도, 취향 등에 발맞추어 영상번역, 미디어번역, 웹툰번역, 게임번역 등 시청각번역(AVT) 교육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망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 생성형 AI 등의 등장 이후에 캐틀(CAT tool), MTPE(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등 번역 테크놀



로지 교육을 위한 수업을 개설해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Pym and Torres-Simón 2021: 49). 교과과정 내에서 번역 테크놀로지 수업이 개설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과의 번역 실무 수업과 번역 테크놀로지 수업이 서로 연계되거나, 번역 테크놀로지 수업에서 배운 것을 번역 실무 수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업끼리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박지영 2023: 75). 또한, Google Assistant, 생성형AI, 음성인식 S/W, GoReact 등을 일반 통번역 실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언제 활용할지 등에 관해 논의해야 합니다(조재범 2023a: 58). 이러한 과제는 남아있지만, 국내 학부 통번역교육에 힘을 쏟는 분들이 모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형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독립된 통번역학과로서 입학 모집단 위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국외대 포함 두세 군데 정도뿐이며, 대부분 대학에서 통번역 교육은 영문학과나 외국어문학과에서 별도의 전공이 아닌 개별 과목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문학과나 외국어문학과에서 문학이나 어학, 외국어교육 교과목들과 경쟁하면서 통번역 관련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통번역 교육의 방향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원준:** 같은 맥락에서 하오와 펴(Hao and Pym 2023: 225)은 테크놀로지의 빠른 성장에 대응해 호주 멜버른대학교 중국어-영어 석사과정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제언을 내놓았는데, 특히, 통번역 교육이 자신만의 학문 울타리에 갇혀있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언급하신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 번역학의 교육가능성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전공언어 학과 내에서 문학, 언어학, 지역학 등 인근 학문분과의 융합 학문으로서의 번역의 교육 가능성과 맥을 함께 합니다. 전공외국어 관련 여러 세부전공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통번역 전공 또는 관련 수업은 실용적으로 전공외국어 학습에도 이바지하면서도 학업 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고 목표이어야 합니다(Cook 2010: xv; Carreres 2014: 126에서 재인용). 오늘날처럼 다언어·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번역은 더 이상 특별한 활동이라기보다 하나의 일상에 가깝습니다(Cook 2010: 109; Carreres 2014: 126에서 재인용). 따라서 전공 외국어의 번역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 3. 번역학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이향:** 지금까지 번역학의 학문장과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논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통번역과 관련하여 ‘대전환’이라는 말은 사실 실무현장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현장은 통번역 수요, 통번역사의 지위 등 사회적 맥락에 크게 영향받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남원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십 년간 전문통번역사들의 왕성한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통번역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면 모두가 함께 위상이 올라가는 듯했는데, 지금은 통번역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통번역에서도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Pym and Torres-Simón 2021: 43-48). 프리미엄 시장은 그대로 프리미엄으로 남아있지만, 시장이 확장한 것은 좋은데 신입 처우가 지나치게 낮은 곳도 늘었습니다. 이는 일반의 인식에 부정적입니다. 아까 ‘건설적 정렬’로 되돌아가보면, ‘정렬’의 한쪽 끝인 졸업 후 진로가 예전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렬’의 반대편 끝에서 통번역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교육현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향:** 통번역사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또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남원준:** 최근의 환경 변화를 짚어보면, 첫째, 통번역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안인경 2019: 128-129). 둘째, 테크놀로지가 크게 발달했다는 점(Katan 2014: 11-13), 셋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의 진행(통합모집, 학과 간 경계 허물기,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 교원 이증소속 제도, 졸업이수학점 체계 개선)이나 대입제도 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진:** 응용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지속가능성은 번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소통 역량을 증명해 보이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번역학의 학문적 가치나 필요성은, 번역이 우리 사회에 유용한 역량이며 사회의 발전과 변화와 함께 하는 융합적 학문 분야라는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존재합니다. 번역학은 역사적

으로도 ‘성서번역→문법번역→문학번역→문화번역→젠더번역→영상번역→코퍼스번역→로컬리제이션번역→기계번역→AI번역’ 등과 같이 끊임없이 동시대 사회적 화두를 번역학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학문적 담론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번역학이 직면하는 가장 큰 변화와 위기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번역 교육에서 사전을 사용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학생들은 통번역 과제를 스마트폰의 파파고나 구글, 챗GPT 번역기로 풀어도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지윤주, 이상빈, 이선우 2023: 213-214). 번역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최수연 2017: 209-110)을 교육 현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번역교육의 큰 숙제가 되고 있는데, ‘문화적 전환’과는 다른 차원에서 번역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기술적 전환’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는 것도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번역연구자의 융합적 역량입니다.

**남원준:**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번역교육기관들은 CAT, MTPE 등 번역 테크놀로지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Pym and Torres-Simón 2021: 49). 일반 번역수업에서도 번역능력의 토대를 겨냥한 입문 단계 수업 중에는 번역과제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업 중 번역을 수행하는 대신(조재범 2023a: 58), 심화단계에서는 MTPE를 수행하거나 여러 학생이 그룹 활동을 통해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기계번역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즉, 트랜스크리에이션 등 창의력, 협업능력, 소통능력 등 좁은 의미의 번역 그 이상의 능력을 함양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50-52). 그렇다면, 통역교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향:** 통역 강의실도 번역강의실과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탁월한 비전문가’의 등장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역을 배운 적 없는데 ‘탁월하게 잘하는’ 샤론 최 같은 통역사의 등장은 과연 ‘전문통역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이향 2021). 영화학도였던 샤론 최가 가진 영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즉 ‘주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통역대학원 졸업생이 가지는 전문성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형진:** 이 맥락에서, 번역을 전공하지 않은 해당 분야 ‘주제 전문가’의 번역 전문성에 대한 언급은 시의적절합니다. 통번역 교육과 관련해서 테크놀로지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한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의 학부 교육의 정체성은 교양적 역량의 강화라고 믿습니다. 학부의 전공을 직업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 현실에서, 학부 과정에서 융합과 학제 간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학 모집단위도 개별 전공이 아니라 계열별로 광역화되고, 복수전공, 연계전공, 다전공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결국 학부교육에서 교양적, 융합적 역량 강화라는 가치와 목적 때문입니다. 더구나 외국어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학부에서 통번역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해서 해당 분야의 통번역 업무까지 담당하는 ‘주제 전문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기존의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을 그대로 학부 교육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는 고민이 됩니다. 교양과목이 필요 없는 통번역대학원은 교양적, 융합적 역량보다 통번역 전문 역량을 강조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는데, 마치 통번역대학원처럼 통번역 역량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학부 교육은,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한 문제해결 역량을 쌓아야 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자칫 인문학적 가치는 소홀하게 여겨도 되는 것으로 왜곡될 위험성은 없을까요?

**남원준:** 중요한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에서 접근한 최근 상당수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학부 번역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통번역을 공부한 후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 또는 전이할 수 있는 능력(transferable skills)의 배양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Hao and Pym 2023: 224; 이상빈 2015: 32). 예컨대, 학부에서의 교육목표로는 외국어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문화이해소통능력, 통번역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대인관계능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의 함양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최근의 번역 수행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체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에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테크놀로지의 도움 없이 통번역능력의 토대를 갖추는 것은 이후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발휘할 창의력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어로의 통번역능력은 졸업 후 원하는 진로에 진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Hao and Pym 2021: 172). 그런 의미에서 한국외대 FATI전공, 부산외대 MICE통번역일본어트랙 등에서 AB통번역 교과를 개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더 늘어야 합니다(이경희 2020: 137-138).

**이향:** 학부 통번역교육의 목표가 ‘전문통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과 동일하게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통번역이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과목들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연구자들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번역학이나 통역학이 통번역 교수자나 연구자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형진:** 하나의 영역이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의 역사적 축적 과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입증에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번역학은 물리학이나 철학처럼 순수학문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와의 접점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학문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문학번역 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을 예로 들면,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과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국문학의 한국어번역은 한국적 수용방식과 가치, 해당 문학이 번역을 통해 만들어내는 문화적 파장과 의의와 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문학의 외국어번역의 경우에는 한국문학의 가치가 어떻게 번역을 통해 재구성되고 구현되는지, 어떤 맥락으로 해외에서 수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번역 연구의 지속가능성도 결국 문학번역의 역할과 가치, 기대효과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향:**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형진:** 문학번역의 가치를 번역학계와 연구자들이 사회나 대중과 공유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문학번역에 대한 논의나 담론을 문학 연구자들이 주도한다면 자칫 번역학 연구자들은 문학번역의 오역 감수만 하는 하청 역할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학 연구자들이 문학번역 연구 범주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번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노벨문학상의 경우, 수상자와 작품이 한국에서 수용되고 평가받는 과정은 번역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데도 매년 10월 초마다 발표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작품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논의를 번역학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겪으면서 전염병이나 팬데믹 관련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이 같은 주제를 문학번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번역학연구』에 한 편도 없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문학번역의 가치와 문학번역 연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역할도 결국 번역학 연구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번역과 마찬가지로 문학번역의 본질적인 역할도 사회와의 소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향:** 통번역 교육의 미래는 어떨까요? 10년 후에도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여전히 통번역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남원준:**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 정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졸업 후 진로에 해당하는 통번역가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안인경 2019: 134-136)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행본 저술, 신문/일반 출간물 등에 번역 관련 글을 게재하여 통번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강지혜 2023: 10). 통번역가들에 대한 처우가 좋고 통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좋아야 통번역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늘립니다. 또한, ‘건설적 정렬’의 수업 활동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테크놀로지 발달을 적극 활용해 단지 번역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 형태로 교재를 개발(온라인 교재, 쌍방향 기능 탑재)하거나, 학습자 코퍼스, 학습자 진척도 관리 시스템, 선생님들의 번역통역 피드백 모음집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교수자-학생이 함께 공동으로 CAT Tool을 활용해 전공 학술서를 번역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좁은 의미의 통번역만을 배우는 곳이 아닌 ‘언어산업’ 전반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홀츠-맨테리가 제시한 ‘번역가행위’(translatorial action)(Munday, Ramos Pinto and Blakesley 2023: 200-203에서 재인용)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면 학생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김연정 2022: 186-187). 이렇게 하면, 주어진 일을 수주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주체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하여 통번역 업무를 기획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1인 기업, 크리에이터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전혜진 2023: 94).

**이향:** 결국, 통번역교육의 지평을 넓히자는 말씀이시군요.

**남원준:** 그렇습니다. 통번역능력을 함양한 후에 확장, 전이할 수 있는 영역을 추가 발굴하고, 통번역과 잘 융합할 수 있는 학문분과(예: 한류/한국문화·문학, 국제통상, 국제학 등)와의 융복합 학습 기회를 늘리고(Hao and Pym 2023: 224-225), 로컬리제이션 교육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전혜진 2023: 98-99).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의 지평도 넓혀야 합니다. 즉, 외국인 학생(한국외대 KFL 대학원, 한국문학번역원 등의 사례), 졸업생을 위한 평생학습 등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못 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에 주목해야 합니다(Pym and Torres-Simón 2021: 50-52). 트랜스크리에이션, 번안, 트랜스에디팅 등 인간만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형진:** 번역학의 응용학문적 정체성을 감안하면 소통은 번역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나 통역 모두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학문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번역학이 발전해온 지난 25년만큼이나 그 이전의 250년, 그 이전의 수백 년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통번역의 역사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 태조 때 설치된 외국어 통번역 일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역원(司譯院)이나(이용길 2022: 115-116) 통번역사인 역관(譯官)에 대한 연구는 과연 어느 분야 연구자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문학 연구자? 역사학 연구자? 교육학 연구자? 번역학 연구자? 학문적 영역 확장은 먼저 도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오늘날 번역학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학문적 확장과 융합에 조금 더 적극적인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대격변의 시대에 번역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통번역 연구자들의 역할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준:** 좀 전에 트랜스크리에이션 등 인간만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주목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번역에서의 창의력 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블룸(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르면, 학습의 인지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가 ‘기억하기’입니다(안수경·남원준 2023: 294). 그런데 대학의 평가는 ‘기억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기억하기’ 다음에는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안하기’가 있는데, 이렇게 높은 단계의 학습 성취도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이 보다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와 교육에 이어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됩니다. 고교 학생부에서처럼 과정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고교학점제에서처럼 성취평가제와 느슨한 형태의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대학평가에 따른 상대평가를 어문계열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이향:** 자기 주제를 넘어서 관심, 이를 뒷받침하는 확장된 독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번역학이 학제적 학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서 말씀하신 ‘확장과 융합’이 가능하려면, 그리고 타 학문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업하려면 우리가 그만큼의 내공과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학문의 개념을 빌어와서 논문 한 편 쓰는 것은 학제적 연구가 아니라 그냥 차용일 뿐입니다. 개론서를 읽는 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고, 번역학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고, 학문 전체의 방향이나 위상을 점검하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형진:**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통번역학의 인문학적 가치 회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의 구조개혁과 광역화 학제개편, 인문분야 전공의 통폐합이나 축소, 폐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학부 과정에 통번역학과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결국 학문으로서 번역학의 지속가능성은 기존의 영문학과나 외국어문학과가 더 많은 통번역 교과목을 개설하고 최소 1명이라도 통번역전공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영문학과나 외국어문학과가 통번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통번역 관련 학계가 파편화와 고립화를 극복하고 기존의 영문학이나 외국어문학 전공자들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통번역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득해서, 이들 학과에서도 통번역학 교과목을 하나라도 개설하고 통번역 전공 교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도록 학회의 통번역학 교수들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향:**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형진:** 통번역학회 회원 중 통번역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통번역 전공 출신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통번역 관련 대학원의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선후배, 사제 관계로 묶이게 되는 통번역학회 구성원들의 관계의 협소함과 폐쇄성의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슷한 교육 배경과 비슷한 학문적 관심사와 비슷한 방법론 안에 안주하면서 학문적 논의의 소재나 주제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융합연구를 학문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번역학의 학문적 확장과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술모임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자 정체성은 학문의 기존



전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건설적 비판,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에 번역 관련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통번역에 관해 열띤 토론을 나누고 각자의 관심 분야의 담론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했던 24년 전 한국번역학회 창립 멤버들의 용기와 진심을(최희섭 2014: 366-373)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학문 탄생의 초기에 비해 통역이나 번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신진연구자들에게는 어떤 방향설정이 필요할까요?

**이향:** 국내에서 번역학 탄생 초기의 연구자들은 학문의 테두리를 설정하고 학문적 위상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다 보니 때로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 연구자들은 부디 번역학의 테두리를 너무 좁게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보다는 더 열린 마음으로 협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원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번역 윤리, 번역정책, 번역의 역사, 번역을 통한 지식의 확산,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 난민 통번역, 기계번역 활용 양상 연구, 기계번역 문해력, 데이터 윤리, 저작권 문제 등을 폭넓게 연구하면 좋겠습니다(강지혜 2023: 9-10). 타 학문 분야 연구자들과 소통 및 협업도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10). 아울러, 번역의 주인공인 번역가, 독자, 작가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이상빈 2023: 325-333). 특히, 공동연구, 공동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번역 테크놀로지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형진:** 신진학자들에게는 통번역학의 인문학적 가치 재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문사회분야의 전공 통폐합이나 광역화 방향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인문사회 전공의 미래는 학과 중심이 아니라 통합적인 교양교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번역 관련 학과에서 통번역 전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교양교육으로서 대중적인 통번역 교과목을 개발하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천 년이 넘는 통번역의 풍부한 인문학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통번역을 주제로 하는 교양교과목은 대학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통번역의 인문학적 역량과 가치에 대한 기존 통번역학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있습니다. 인간을 이어주는 통번역의 핵심은 소통의 가치인데, 소통은 “(통)번역에 대한 의식적이고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인문정신”(전성기 2009: 134)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인문학의 가장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통번역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 교육적 역량과 도전이 앞으로의 통번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믿습니다.

**이향:** 긴 토론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에게 건설적인 토론만큼 자극과 에너지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학계만큼 토론이 빈곤한 공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와 토론도 소통의 일부이지만, 보다 진솔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기획에 참여하면서 두 분과 ‘번역학’이라는 공간을 함께 바라보며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축한 ‘번역학’이라는 소중한 집이 외부 변화에 맞춰 개선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이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23) 「번역학 연구의 도전과 과제」, 『2023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 대전환 시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재검토 발표논문집』, 1-12.
- 김순영 (2006)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와 도입」, 『통역과 번역』 8(1): 27-43.
- 김연정 (2022) 『번역의 미래』, 서울: 제인 컴퍼니.
- 김진아, 강수정, 김유미, 박혜원 (2014) 「한국 통번역 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 - GSIT를 통해 본 한국 통번역교육의 발전사」, 『통번역학연구』 18(3): 315-340.
- 남원준 (2023) 「기존 번역전공대학원과 한국문학번역원(번역대학원대학교)의 협력 가능성」, 『한국문학번역원 번역교육 심포지엄 K-컬처 시대의 문학·문화콘텐츠 번역과 번역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146-148.

- 남원준·이형진 옮김 (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5판, 원전 저자: Jeremy Munday, Sara Ramos Pinto and Jacob Blakesley (2023), 서울: 한국외대 지식콘텐츠출판원. (원전 발행년 2022).
- 박지영 (2023) 「국내 통번역대학원 CAT 번역수업 현황」, 『2023년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국내학술대회 K-콘텐츠와 통번역 발표논문집』, 63-78.
-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 안수경, 남원준 (2023) 「국내 학부 통번역학과에서는 무엇을 교육하는가?: 학과 교육목표, 교과과정, 교과목별 강의계획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285-319.
- 안인경 (2019) 「현대 한국 통번역의 역사와 과제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GSIT) 개원 40주년을 맞아」, 『통번역학연구』 23(4): 113-141.
- 안호영 (2017) 「융복합 학문과 두 질서의 문제」, 『철학논총』 87(1): 313-340.
- 유정화 (2014)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 연구」, 『번역학연구』 15(3): 125-151.
- 이경희 (2020) 「국내 학부 통번역 교육과정 현황 고찰」, 『번역학연구』 21(4): 115-150.
- 이상빈 (2015) 「국내학부 영어 통번역 교육훈련의 문제와 해결방향: 한국외대, 동국대, 경희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21-44.
- 이상빈 (2023) 「국내 번역학 연구의 과제」, 조의연과 이상빈 (편) 『K 문학의 탄생 - 한국문학을 K 문학으로 만든 번역 이야기』, 파주: 김영사, 305-334.
- 이용길 (2022) 「조선 시대 사역원의 외국어 교육」, 『한국교육사학』 44(2): 113-144.
- 이향 (2008) 「비네와 다블네의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그 의미와 한계」, 『프랑스학연구』 45: 77-95.
- 이향 (2019) 「번역학의 개념도 그리기」, 『번역학연구』 20(2): 131-151.
- 이향 (2021) 「샤론 최, 아바타가 아닌 파트너」, 『인문언어』 23(1): 33-53.
- 이향 (2023) 「회의통역은 어떻게 통역학의 화두가 되었나」, 『T&I Review』 13(1): 63-79.

- 이형진 (2021) 「비교문학의 정전화와 교육: 미국비교문학회 ‘10년 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85: 7-44.
- 전성기 (2009) 「탐구번역론 - 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번역학연구』 10(2): 133-157.
- 전종희 (2023) 「대학교육 혁신 사례 및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5(5): 551-563.
- 전혜진 (2023) 「AI 시대, 미래지향적 번역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한계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번역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교육 심포지엄 K-컬처 시대의 문학·문화콘텐츠 번역과 번역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92-101.
- 정광 (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서울: 김영사.
- 조재룡 (2010) 「변증법적 세계관의 한 실현방식: 프랑스 백과전서파와 ‘최남선」」, 『대동문화연구』 69: 447-483.
- 조재룡 (2016) 「‘번역문학’이라는 불가능성의 가능성 - 개념 정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코기토』 79: 7-51.
- 조재범 (2023a) 「AI시대 학부 번역교육 방향 모색 - 입문 단계를 중심으로」, 『2023 한국통역번역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챗GPT 시대의 통번역 교육 발표논문집』, 53-58.
- 조재범 (2023b) 「AI시대 번역교육의 지향성 모색」, 『2023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 대전환 시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재검토 발표논문집』, 144-148.
- 지윤주, 이상빈, 이선우 (2023)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7(3): 203-226.
- 최수연 (2017)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시대의 영상번역」, 『번역학연구』 18(2): 207-228.
- 최희섭 (2014) 「한국번역학회의 태동과 발전」, 『번역학연구』 15(5): 363-388.
- 한현희 (2017) 「한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번역학연구』 18(1): 171-202.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a (eds) (1998/201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6) 'Non-Cognitive Constraints and Interpreting Strategies in Political Interviews', in Karl Simms (ed.) *Translating Sensitive Texts*, Amsterdam and Atlanta: Rodopi, 111-129.
- Biggs, John, Catherine So-kum Tang and Gregor Kennedy (2022) *Teaching for Quality Learning at University*, Maidenhead: Open UP.
- Carreres, Ángeles (2014) 'Translation as a Means and as an End: Reassessing the Divid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1): 123-135.
- Chesterman, Andrew (2005) 'Towards Consilience?' in Karin Aijmer and Cecilia Alvstad (eds) *New Tendencies in Translation Studies: Selected Papers from a Workshop, Göteborg 12 December 2003*, Göteborg: Göteborg University, Department of English, 19-28.
- Cook, Guy (2010)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 Argument for Reassessment*, Oxford: Oxford UP.
- Gile, Daniel (1994) 'Opening up in Interpretation Studies', in Mary Snell-Hornby, Franz Pöchhacker and Klaus Kaindl (eds)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e*, Amsterdam: John Benjamins, 148-158.
- Hao, Yu and Anthony Pym (2023) 'Where Do Translation Students Go? A Study of the Employment and Mobility of Master Graduat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7(2): 211-229.
- Holmes, James S. (1988/2004)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80-192.
- Hurtado Albir, Amparo (2017) (ed.) *Researching Translation Competence by PACTE Group*,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Katan, David (2014) 'Uncertainty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s: Time to Transcreate?', *Cultus: The Intercultural Journal of Mediation and Communication* 7: 10-19.
- Kelly, Dorothy (2005/2014)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im, Daejin (2023) 'What's Next? The Status Quo and Challenges of

-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in Korea’, in Riccardo Moratto and Hyang-Ok Lim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Interpreting*,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115-129.
- Kim, Hyongrae (2021) ‘Interpreters in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 Government of, for, and by Interpreters?’, *TTR* 34(2): 123-148.
- Lambert, José (2005) ‘Is Translation Studies Too Literary?’ *Genesis* 5: 7-20.
- Lefevere, André and Susan Bassnett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Printer Publishers.
- Lee, Hyang and Won Jun Nam (2019) ‘The Past and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7(3): 419-430.
- Nida, Eugen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Netherlands: E. J. Brill.
- Pym, Anthony and Esther Torres-Simón (2021) ‘Is Automation Changing the Translation Prof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70: 39-57.
- Rudvin, Mette (2007)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Community Interpreting: The Impact of Individualist versus Collective Group Identity on Interpreting Performance’, *Interpreting* 9(1): 47-69.
- Schäffner, Christina (ed.) (2004) *Translation Research and Interpreting Research: Traditions, Gaps and Synergies*, Clevedon, Buffalo,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Abstract]

## **Translation Studies in an Era of Transformation: Ensuring a Sustainable Future**

Hyang Lee\*, Won Jun Nam\* & Hyung-ji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is a condensed transcript of a discussion about the history,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translation studies in South Korea. In light of the ongoing transformation in this field, the discussion begins by assessing the growth of translation studies as an academic discipline. It raises concerns about ‘fragmentation’, where researchers tend to communicate only with those who share their specific interests. Hence, efforts are necessary to establish a shared set of academic values that can further bind scholars in the field. The discussion also delves into the evolution of T&I education in Korea and how recent developments have reshaped the classroom. The panel mak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For instanc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comprehensive map of Korea’s translation studies landscape. Also, scholars in translation studies should actively engage with the general public and promote the value of translation. Furthermore, translation studies researchers should broaden their horizons by delving into in-depth readings and discussions on topic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other academic disciplines. T&I education should also expand to allow students to explore various aspects of the language industry. The article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

**Keywords:** Translation studies, disciplinary identity, structurization, teachability, sustainability, an era of transformation

**주제어:** 번역학, 정체성, 체계성, 교육가능성, 지속가능성, 대전환 시대

이향(1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 분야: 번역학의 역사, 통역학의 역사, 난민통역, 통역윤리, 동시통역의 기원

남원준(교신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EICC학과 교수

wjnam@hufs.ac.kr

관심 분야: 통번역교육, 번역실무와 이론의 접목

이형진(공동저자, <https://orcid.org/0000-0003-2943-2010>)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jinlee@sookmyung.ac.kr

관심 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번역이론

논문 투고: 2023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11월 28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8일